

## 도심 속 가족명소 용산어린이정원, 개방 1주년 기념행사 개최

- 1년간 20만명 넘게 방문… 도심 속 어린이 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
  - 1주년 기념 어린이정원 꿈나라마켓(기념품샵) 개관
- 5월 4일~6일간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, 5월 26일까지 야간개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4일(토)부터 5월 5일(일) 양 일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아 ‘용산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 생일잔치’를 개최한다.

□ 용산어린이정원은 주한미군기지로 활용되던 부지를 반환받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.

○ 7만m<sup>2</sup> 규모의 넓은 잔디마당, 어린이가 물놀이 할 수 있는 분수정원, 야구장·축구장·테니스장으로 구성된 스포츠펠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.

○ 또한,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버스킹·워킹투어·스탬프 투어 등 상시프로그램 및 음악회, 물놀이행사 등 각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.

○ 지난 1년간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며 도심 속 어린이체험 및 국민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.

\* 211,146명 방문('23.5 ~ '24.3월, 285일) / (평일) 일평균 577명 / (휴일) 일평균 1,013명

□ 개방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행사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꿈나라마켓 개관식을 진행한다.

○ 잔디마당 서측에 위치한 꿈나라마켓은 기존 미군주택을 리모델링한 것으로, 텀블러, 우산, 돛자리 등 어린이정원 기념품을 판매하고, 축구골대, 공, 캠핑의자·테이블 등 어린이 놀이용품과 피크닉용품을 대여\*한다.

\* (대여용품) 캠핑의자, 폴딩테이블, 담요, 축구골대·공, 대형공, 탕탕볼, 원반 등

- 어린이정원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린이정원 개방 1주년을 맞이하여 5월에 플리마켓, 어린이정원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간별로 진행한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지난 1년간 용산어린이정원에 20만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”고 전하면서,
  - “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용산어린이정원에 방문하여 마음껏 뛰놀고,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·체험 공간과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니 자주 방문해주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- 한편, 용산어린이정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6일(일)까지 주말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개장한다.

담당 부서	용산공원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	책임자	과 장	정승수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하 (02-2131-2036)

